1월 첫째 주 그룹큐티나눔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

누가복음 1:1-25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 200장, 구 235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1월의 주제는 '말씀대로 믿고 전하는 삶'입니다(1주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 2주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3주 '교훈과 반대', 4주 '반드시 열매 맺는 말씀', 5주 '누가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전하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1-4절).
1)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전해주었습니까(2절)?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첫째,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구두로 전하여 준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으며,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인물이다. 둘째, 어떤 이들은 이러한 구전을 이미 글로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는 누가복음 이전에 기록되었던 복음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2)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써 보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4절)?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적으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편지,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개인만을 위한 글이 아니다. 어떤 글을 유력한 인물에게 헌정하는 형태로 쓰는 것은 당시 관례이기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글의 권위를 높이고, 더 많은 독자들이 읽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을 주 독자로 상정하고 쓴 책이다. 그 목적은 이미 알려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면밀하고도 확실하게 증거 하는 데 있었다.

나눔1　사도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나마 알더라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복음을 바로 알리고 변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2.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5-17절).
1)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6절)?
의인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이 되었다. 아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이다. 이들 부부는 내적으로도 경건했다. 사람 앞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들이었다(6절).

2) 사가랴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7절), 그의 간구는 어떻게 응답됩니까(13절)?
부부의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었다(7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13절).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경건한 이들로서는 참 가혹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흠 없이 경건히 행했다. 이는 이들 두 부부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익히 짐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3) 이후 사가랴의 아들이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16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

6절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지시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을 떠올리게 한다(민 6:3). 나실인과 같이 구별될 사가랴의 아들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그 아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나눔2 경건한 자라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큰일을 이뤄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받은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3. 약속의 징표로, 사가랴는 아들을 낳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18-25절).
1) 천사의 응답에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18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아내는 늙고 나이가 많다'라고 하였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들을 얻는 일은 그의 기도가 응답된 일이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리라는 천사의 예고에 사가랴는 뜻밖에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식을 갖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말씀을 바로 믿는 데 장애가 되었다. 사가랴는 이 일이 진정 성취될 것이라면 그 증거를 달라고 요구한다.

2) 사가랴의 말에 천사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20절)?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사가랴는 증거를 얻지만 그 증거는 뜻밖에도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가랴에게 왔다(19절). 그러나 사가랴가 의심했을 때, 사가랴는 좋은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입이 막혀버렸다.

3)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였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단정히 행하려는 조심스러운 자세였다. 엘리사벳은 임신하고 숨어 사는 다섯 달이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나눔3 신실한 자라도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_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_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월 둘째 주 그룹큐티나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누가복음 3:15-38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온 세상 위하여(찬송 505장, 구 268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전도자에게는 늘 고난이 따랐습니다.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교훈합니다(요일 3:13). 고난의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항상 고난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례(침례) 요한은 그 고난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15-17절).
1) 백성은 세례 요한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15절)?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신가' 하고 생각했다.

구약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바벨론에 나라를 빼앗긴 후 600년에 이르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타민족의 오랜 압제 속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갔다.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

2)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16절)?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베푸실 것이며, 그분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기에 자신은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당시 사회에서 주인의 신발 끈을 풀어주고 관리하는 것은 노예의 몫이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발 끈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한다.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회개에 대한 육체적인 표징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는 거듭남의 세례다.

3)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17절)?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일, 즉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천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져, 영생 혹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마 25:46; 벧후 3:7).

나눔1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여 자신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때에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소개하겠습니까?

2.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한 일로 투옥됩니다(18-20절).
1)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19절)?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가 행한 모든 악행 때문이다.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다. 예수께서 오실 때 영아들을 살해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다. 헤롯은 아라비아 왕의 딸을 첫 번째 부인으로 맞았으나 그녀를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다. 이는 율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패륜적 행위였다(레 18:16; 20:21).

2)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 하였습니까(20절)?
옥에 가두었다.

헤롯은 자신을 대놓고 비판하는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사실 헤롯은 요한을 처형하고 싶었지만 백성의 여론이 무서워 주저하고 있었다(마 14:5). 헤롯은 백성들이 두려웠지만,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위해 요한의 처형을 명한다(마 14:6-11).

나눔2 말씀을 따라 옳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다가 겪은 고난이나 어려움, 손해가 있습니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3.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이후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합니다(21-38절).
1)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어떤 형체로 내려오십니까(22a절)?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의 오심을 연결 짓고 있다. 기도와 성령의 일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시는 것과 같은 장면은 없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던 새가 비둘기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창 8:10-12), 이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2)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22b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 표현이다. 인격적 긴밀성을 뜻하기도 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 예언과 일치한다(사 42:1). 이사야 42장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겸손한 구원자다.

3) 이후 소개되는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23-38절)?
(아담과) 하나님

누가의 족보는 인류 공통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인류를 위한 사건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까지 올라간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나눔3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잊고 있거나, 미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큰 뜻을 고백한 때가 있었습니까? 나의 안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할 때,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_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에 요구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_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월 셋째 주 그룹큐티나눔

교훈과 반대

누가복음 6:1-11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주의 말씀 듣고서(찬송 204장, 구 379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롬 10:2-3). 이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신중하게 주의 교훈 앞에 서야 합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예수님은 항의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치십니다(1-5절).
1)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 불평합니까(1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일

남의 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서 허용하는 일이었다. 다만 낫을 대면 안 된다(신 23:25). 남의 밭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것은 금한다. 하지만 허기를 면하게 하는 수준에서는 모두가 서로 베풀도록 한 율법의 유연성이다. 바리새인들이 불평한 것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라는 율법의 규정은 없다. 그것은 율법에서 파생된 유대인들의 전통법에 속하는 내용이었다.

2)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예로 들어 그들의 불평을 반박하십니까(3-4절)?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고 자신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준 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 제사장에게서 진설병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삼상 21:1-6). 진설병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떡이었다(레 24:9).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제사장이나, 먹은 다윗을 책망치 않으셨다. 이 사건은 율법의 본의를 교훈하는 사건이다. 진설병을 구분하게 하신 것은 거룩함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주지 말라는 어떤 주술적, 종교적 금기를 정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형식뿐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님의 종인 다윗도 생명 보존이라는 율법의 본의를 따라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5절)?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교훈에 분노하는 대신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식일의 주인께서는 죄라고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 보았는가? 마땅히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기에 오히려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나눔1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도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습니다(6-7절).
1)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6절)?

오른손 마른 사람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오른손'이라는 환부의 위치를 정확하게 묘사한다. 이는 아마도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환자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다는 묘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좀 더 부각시킨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손이었다. 그가 생계를 꾸려감에 있어 매우 힘겨운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알게 된다.

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로 엿본 것은 무엇입니까(7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았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다(눅 4:31-37). 같은 날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도 치료하셨다(눅 4:38-39). 그러나 이때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관찰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고, 그들이 보기에 부정한 죄인들과 식탁 교제 나누는 것을 보았다. 이는 스스로를 죄인과 구별되는 의인으로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이후 이들은 못마땅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정죄할 방도만 찾게 되었다.

나눔2 하나님의 법은 죄인이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누군가를 정죄하여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빙자하여 미움과 증오를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릇된 정죄의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할 음모를 꾸밉니다(8-11절).
1)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후,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9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물으셨다.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의 본의를 꿰뚫는 명료하고도 통쾌한 질문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은 선하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선을 행하여 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전혀 충돌할 수 없다. 어리석고 편협한 교리와 종교적 전통에 함몰되면, 당연한 답이 어려워지는 비극에 빠진다.

2) 예수님의 치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11절)?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그들의 눈에는 안타까운 병마에 인생을 저당 잡힌 불쌍한 영혼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이 정한 전통과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다. 이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나눔3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참조. 마 12:14). 누군가를 돕는 일은 때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남을 돕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선행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서로 나눠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겸손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의 참뜻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 _ 말씀이 바로 선 공동체, 그릇된 관습을 버리고 말씀의 내용을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월 넷째 주 그룹큐티나눔

1.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섬깁니다(1-3절).

1)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십니까(1절)?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분은 가야 할 곳을 가리지 않으시고, 성이나 마을 혹은 작은 집이나 길거리, 심지어 사마리아 같이 유대인들이 지극히 꺼리 곳까지도 다니셨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구원의 교리만이 아니었다. 온 세상을 구석구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셨다.

2)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운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도왔습니까(2-3절)?

악귀와 병에서 고침받은 여인들(일곱 귀신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은 남자들 가운데서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여인들에게 주목한다. 당시 여인들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신분이 현격히 낮았다. 이들은 특별히 여인들 가운에서도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었다. 오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더 낮고 약한 이들이었다. 연약한 이들의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서 가장 우선된 일로 기록되어 있다. 약한 이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고전 1:27).

2. 예수님이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4-15절).

1) 네 곳에 떨어진 씨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4-8절)?

① 길가(5절): 밟히거나 새들이 먹었다.
② 바위 위(6절):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다.
③ 가시떨기 속(7절): 가시가 함께 자라 자라는 기운을 막았다.
④ 좋은 땅(8절): 자라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밭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이다. 이 비유에 앞서 누가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복음 증거 사역을 언급한다. 즉 이들이 전한 복음이 비유에 언급된 네 가지 밭과 같은 영혼에 떨어질 것이다. 네 개의 밭 중 제대로 열매 맺은 밭은 한 개뿐이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결과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전도자가 낙망하지 말 것은 그 한 개의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이다(8절).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표면적으로 열매 없는 다수의 밭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옥토에 반드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믿고,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11절)?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조건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된 옥토 같은 심령에 떨어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 아무리 표면적으로 영향력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비록 전하는 내 처지와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옥토를 만나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3) 각기 다른 곳에 떨어진 씨에 일어난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12-15절)?

① 길가(12절):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가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빼앗는 것
② 바위 위(13절):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
③ 가시떨기 속(14절): 말씀을 들었으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
④ 좋은 땅(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씀을 받은 이들이 겪게 되는 시험의 면모를 상세히 보게 한다. 또한 이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교인의 양상이기도 하다.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작용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들을 때는 기쁘고 열정적으로 반응하나 고난과 시험이 오면 금세 무너지는 이들이 있다. 고난과 시험이 없어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 세상의 쾌락에 미혹되어 무너지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참 신자는 말씀을 기쁘게 받을 뿐 아니라 듣고 지킨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키는 것이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인내'를 가진 지속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침내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된다.

1월 다섯째 주 그룹큐티나눔 / 누가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 누가복음 9:37-50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을 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줄 혜택에만 마음이 가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미칠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참 능력을 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37-42절).
1)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사람의 청은 무엇입니까(38-39절)?
귀신 들린 외아들을 돌보아달라는 요청이었다.

마태는 이 아이의 문제를 간질병이라고 언급한다(마 17:15). 누가는 그 증세를 상세히 기록하지만, 병명을 말하는 대신에 "귀신이 그를 잡아"라고 병의 원인을 정확히 언급한다.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귀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신이 이 병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과의 직접적인 싸움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한다.

2)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이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일이 아니라,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는 '믿음'과 결부된다. 물론 귀신을 쫓았다고 반드시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능력을 받고도 믿음이 없어서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태다.

나눔1 '믿음'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은사와 재능도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2.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예고하십니다(43-45절).
1)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담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44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말씀이다.

누가복음에는 네 번에 걸쳐 예수님의 수난 예고가 나온다. 이 본문은 22절의 첫 번째 예고 이후 하신 두 번째 예고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메시아는 승리의 왕이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이미 상세히 예언한 바 있다(사 53장).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계속 알리셨다.

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45절)?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고난을 예고하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였다. 두 번째 예고 전에는 변화산에서의 영광과 귀신 축출의 표적이 있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제자들도 여전히 메시아에 대해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였다. 그들 생각에 이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오르셔야만 했다.

나눔2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해방을 꿈꾸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난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내 기대와 욕심이 강할 때,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려는 순종

의 자세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3.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교훈하십니다(46-50절).
1) 예수님은 서로 자신이 크다고 다투는 제자들 앞에 누구를 세우십니까(47절)?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셨다.

그들은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했던 자리,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신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요, 지극히 작은 자였다.

2) 예수님은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48b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는 일은 높은 사람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낮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모시는 것은 높고 화려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낮고 작은 자리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결국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인 것이다.

3) 예수님은 어떤 자가 제자들을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50절)?
너희(제자들)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셨다.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이를 금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서도 누가 높은지를 놓고 다툰 사람들이니 마치 자신들의 특권을 제자도 아닌 자들이 도용하는 것처럼 불쾌하게 느꼈을 것이다.

나눔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어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큰 자로 여기며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특권을 지키려고 타인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 안에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옹졸함이 있습니까? 또 특별히 더 겸손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겸손히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적절히 발휘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 _ 겸손히 서로 섬기며, 넓은 마음으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월 첫째 주 그룹큐티나눔

하나님 나라의 표적

누가복음 11:27-36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주 달려 죽은 십자가(찬송 149장, 구 147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2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1주 '하나님 나라의 표적', 2주 '하나님 나라와 안식', 3주 '하나님 나라의 지혜', 4주 '하나님 나라의 주인').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그 영원한 나라의 법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삶의 목적과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교훈하십니다(27-28절).
1) 한 여인이 예수님을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27절)?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하였다.

여인의 축복은 예수님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영광되시기에 그의 어머니까지도 그 영광이 미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이다. 이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했던 고백과 비슷한 내용이다(눅 1:41-42). 또한 이 말은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혜를 고백한 말이기도 하다(눅 1:48).

2)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28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질책이 아니다. 마리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높여 마땅하다. 마리아가 얻은 특별한 은혜, 말하자면 신앙 체험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그 은혜의 무게와 결코 다르지 않은 은혜요, 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특별히 만져주시기를 사모한다.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일임을 다시 상기시키신다.

나눔1 우리는 특별한 신앙 체험을 바라거나, 혹은 그런 체험이 있는 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십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특별한 은혜로 여깁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 교훈하십니다(29-32절).
1)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9절)?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될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눅 11:16). 즉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요구한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끊임없이 불평하며,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특징이다.

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2절)?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란 결국 표시, 즉 표지판과 같다. 그 표지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나의 표적이란, 결국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때에 이방 땅 니느웨는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미 받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대한 표적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실 표적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라는 요구다.

나눔2　악한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을 위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회개를 위한 표적을 주십니다. 자기 부인과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며 진솔하게 나눠봅시다.

3.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33-36절).
1)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3절)?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어두운 곳에서는 등불이 있어야 밝히 보게 된다. 그런데 단지 등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등불이 있지만, 움속이나 말 아래 둔다면 마치 등불이 없는 것과 같은 어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등불은 적절한 곳에 밝히 켜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다(시 119:105). 그런데 그 등불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우리 삶의 가장 적절한 곳에 밝히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며, 실천해야만 우리 삶이 말씀으로 밝아진다.

2) 우리 몸의 등불은 어디입니까(34절)?
 눈

등불이 켜져 있다 한들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담아 우리 삶으로 옮겨주는 영적인 시각이야말로 우리 몸의 등불이다. 우리의 눈이 등불을 보지 못하고, 늘 감겨 있다면 우리 몸도 어두워진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서 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

3) 우리가 우리 속을 살필 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35절)?
 우리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두움을 잘 관찰해야 한다. 죄가 드리우는 곳, 하나님이 부재한 삶의 자리 말이다. 이렇게 죄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을 돌리는 작업을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 결국 우리가 우리 삶에 빛이 없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영적 시야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늘 볼 수 있는 적절한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음도 깨달을 수 있다.

나눔3　눈이 밝으면 삶도 빛나지만, 눈이 어두우면 삶도 어둡습니다.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 관심을 '빛이신 주님'(요 8:12)과 '등불인 말씀'(시 119:105)을 향해 돌린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까?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이 땅에서의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 _ 악한 세대 속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참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월 둘째 주 그룹큐티나눔

하나님 나라와 안식

누가복음 13:10-21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찬송 412장, 구 469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플 일이 없는 곳입니다(계 21:4).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픔을 돌보아주는 자들입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십니다(10-13절).
1) 회당에 나온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11절)?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였다.

본문은 여인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임을 강조한다. 그녀는 이미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병에 시달렸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었다는 것은 척추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몸의 중심인 척추가 무너져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병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 병은 귀신이 들려 발생한 병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를 동반한 병이었다. 그녀가 회당을 찾은 때는 안식일이었으나, 그녀는 전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12-13절)?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며 안수하셨다. 이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은 여인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불러 치유해주신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 간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저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큰 은혜를 누리기도 한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친히 여인을 안수하신다. 여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인은 그로 인해 마침내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눔1　예수님은 18년 동안 한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여인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보통의 쉼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안식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해서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을 만나 안식을 회복한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2.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모순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십니다(14-17절).
1) 회당장은 무리에게 뭐라고 합니까(14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

회당장의 말은 종교적 전통으로 보면 맞는 말이었다.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에는 목숨이 위급한 환자 이외에는 안식일에 치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규례는 사람이 만든 전통일 뿐, 하나님이 안식을 규정하신 율법 본의에는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2)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일을 외식하는 자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행한 것에 빗댈 수 있다고 하십니까(15절)?
그들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

유대인의 안식일 전통에는 짐을 싣지 않은 짐승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일정 거리 안에서 짐승을 이동시켜 풀을 뜯게 하거나, 물을 먹게 하는 규정도 있었다. 짐승에겐 관대하나, 오히려 병자에게는 엄격한 전통 규례는 매우 이율배반적이었다. 사람이 만든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완벽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과연 그를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은 올바른지에 대해 먼저 물어야 한다.

3) 반대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17절)?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그들이 반성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이 할 말을 찾지 못했고,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했기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는 의미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반대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언급한다(요 5:16-18). 많은 무리가 기뻐했지만, 모두는 아니었다. 바른 말씀이 늘 모두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지는 않는다.

나눔2 신앙의 외형에 집착하다 보면,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안식이 없는 안식일, 자비가 없는 규칙,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 겸손함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봉사가 그렇습니다. 내용이 사라진 행위가 낳는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행위들은 바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18-21절).
1)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십니까(18-21절)?
겨자씨와 누룩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모두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작게 시작되는 나라임을 드러낸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모든 하늘과 땅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다. 처음은 단 한분 예수님뿐이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하늘 가운데 자라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다.

2) 겨자씨와 누룩의 특성은 무엇입니까(19,21절)?
① 겨자씨(19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② 누룩(21절):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다.

한 알의 겨자씨는 무척 작다. 하지만 그 씨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가 나무가 되듯 조용하지만 묵묵히 그리고 견고하게 자라간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 그늘 아래 쉬게 한다. 가루 서 말 속에 넣은 누룩이란,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효소를 뜻한다. 이는 일종의 곰팡이로, 조용하지만 급격하면서도 강력하게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 이는 복음의 강력한 파급력을 의미한다.

나눔3 하나님 나라는 작고 은밀하게 시작하지만 모든 사람이 깃들여 안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을 변혁할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작은 모임, 내가 참여하는 작은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길 기대하는지 나눠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잃은 이들이 쉼을 얻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공동체 _ 신음하는 세상을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싸매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월 셋째 주 그룹큐티나눔

하나님 나라의 지혜

누가복음 16:1-13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찬송 438장, 구 495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이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악한 인생들은 과연 어디에서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비록 염치없는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사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불의한 청지기가 직분을 잃습니다(1-3절).
1) 주인은 청지기에 관해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1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결코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관리해야 할 것들은 마음대로 썼다. 이 비유 직전 본문은 누가복음 15:11에서 시작하는 소위 탕자의 비유다.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아들의 이야기다. 결국 여기 탕자와 청지기는 우리 모든 인류를 뜻한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청지기로 지음받았지만,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다. 이후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하나님을 세상과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자기 뜻대로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2) 부자는 청지기에게 어떤 처분을 내립니까(2절)?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였다.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심판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세상과 인생을 제 뜻대로 살던 불의한 청지기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어떤 방책을 강구할 시간을 준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가 계속 이처럼 주인 노릇하다가는 분명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나눔1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소유는 물론이고 사업, 직장, 건강, 시간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품을 때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품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인식하여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2. 불의한 청지기는 직분을 잃은 뒤에 살아갈 방도를 찾습니다(4-7절).
1)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합니까(5, 6절)?
그들의 빚을 감면해주었다.

청지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빌어먹을 수도 없는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이제 청지기는 해임되기 전에 자신이 가진 마지막 권한을 이용하여 빚진 자들의 빚을 일부 감면해준다. 학자들은 그가 이자를 탕감해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지기의 조치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주인의 성품에 걸맞는 정책을 실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도 도모하였을 것이다.

2) 청지기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4절)?
청지기를 그만둔 후에 빚을 감면받은 사람들에게 영접받으려고 그리하였다.

청지기의 의도는 단순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주인의 것으로 살길을 찾자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친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것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선포한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3.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8-13절).
1) 청지기가 한 일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8절)?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주인은 놀랍게도 청지기의 이 마지막 도둑질을 칭찬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주인이 정상인가?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제멋대로 사용한 청지기인 우리가 주인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가는 게 가당키나 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을 취한 우리를 오히려 칭찬하신다. 따지고 보면 가장 큰 강도짓이요, 도둑질인 그 일이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신다.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반응을 우리는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라고 한다. 아버지의 것을 허랑방탕 낭비한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은혜다.

2)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것은 누구입니까(9절)?
불의의 재물로 사귄 친구

예수를 믿는 일이 왜 즉각적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일과 결부되는가.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마 10:42).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일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주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사귀는 일이다. 때문에 참된 회개는 언제나 바른 재정적 헌신을 결단케 한다. 세리 삭개오가 회개하였을 때, 그는 토색한 재물을 네 배로 갚고, 자신의 재물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결단했다(눅 19:8).

3)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맡길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11절)?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 자신의 재물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믿음을 참되다 할 수 있을까? 자기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청지기에게 말씀과 진리와 영원한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재물은 우리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그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참된 것을 주실 리 만무하다.

나눔2 불의한 청지기였던 우리는 살길을 찾아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귐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삶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나눔3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도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사용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실천하려고 애쓰는 구체적인 재정 원칙은 무엇입니까?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 _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월 넷째 주 그룹큐티나눔

하나님 나라의 주인

시편 48:1-14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찬송 585장, 구 384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창 15:13-14),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늘 크고 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기뻐 찬양하며 전하는 자들입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이 시온 산에서 온 세계의 찬양을 받으십니다(1-3절).
1)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처소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1-2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 산으로 묘사되고 있다.

1절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2절의 터가 높고 아름답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의 지형을 근거로 한 말이지만,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적 언어로 사용된다. 시인은 이를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북방은 성전의 위치를 염두에 둔 말이다. 시온 산은 예루살렘 서쪽의 산인데,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2) 하나님은 여러 궁중에서 그분을 무엇으로 알리십니까(3절)?
요새로 알리셨다.

예루살렘은 산지로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용이한 천혜의 요새다. 그곳에 세워진 궁중은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다. 그러나 그런 지리적 군사적 이점이 예루살렘을 진정 안전한 요새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만 그곳이 진정 안전한 요새가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안전했다.

나눔1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산성이자 요새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때에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2. 하나님께서 시온을 공격하는 열왕과 나라를 멸하십니다(4-8절).
1) 왕들이 빨리 지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5절)?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셔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때는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다. 여러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였다. 5절 원문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로도 번역할 수 있다.

2) 왕들에게 임한 고통은 무엇과 같습니까(6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왕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큰 고통을 맛보고 말았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시인은 산고에 비유하고 있다.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뿐 아니라 실질적인 파괴에 직면했다. 이를 7절에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라고 표현했다. 다시스의 배는 솔로몬의 무역에 사용된 가장 좋은 배의 대명사다(왕상 10:22). 그러나 그러한 배들

조차 바람으로 깨뜨리시는 광경을 대적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3)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패하는 왕들을 보며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8절)?
 들은 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시온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도하는 증인이 되어 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왕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본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은 지리적 이점도, 군사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눔2 시인은 그의 조상에게 들은 대로 시온을 치러 온 적국이 하나님 앞에서 패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악인의 멸망을 약속하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그분께 맡기라고 교훈합니다(롬 12:19). 증오와 미움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 시온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일을 후대에 전합니다(9-14절).
1)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전에서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9절)?
 주의 인자하심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히려 매우 약한 나라였으며, 애굽의 종이었다(신 7:7).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작은 자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인자하심이었다.

2) 시온 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들의 패배를 기뻐하는 것은 단지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게 될 일도 이와 같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침내 마귀의 완전한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3) 시온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12-13절)?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며,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야 한다.

여기서의 시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의 상징이다. 시온을 자세히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성경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나눔3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누린 은혜는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한 경험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서로 나눠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산성이며 요새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공동체 _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